

## 대학생의 외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정 민<sup>†</sup> 노 안 영  
전남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외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신경증적 경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외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과 인지양식과의 관계에서 외향성이 증가할수록, 신경증적 경향이 증가할수록 장의존 인지양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장독립 인지양식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의 외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이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경증적 경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이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이해하기 위해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및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추후 성격 및 인지양식의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심리적 안녕감,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

<sup>†</sup> 교신저자: 정 민,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500-757)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Tel: 019-619-8828, E-mail: saiyoenj@hanmail.net

최근 OECD가 발표한 OECD 통계연보에 의하면 한국은 가입국 중 학생들의 성적 및 교육비 지출 등은 상위에 속하지만 근로시간은 1위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은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08. 4. 8).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또한 변화한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던 20세기에는 경제 발전을 주요한 관심사로 삼았다. 그러나 21세기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질, 행복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예전에는 GDP, GNP가 얼마인지, 세계 몇 위인지에 더 관심이 쏠렸지만 지금은 삶의 질이 몇 위인지, 왜 삶의 질이 낮은지, 행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 좀 더 질적인 삶과 심리적인 안녕감에 관심을 갖는다.

심리적 안녕감은, 행복,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그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대상 집단 및 연령에 따라 점차 세분화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세대의 행동은 그 사회의 문화적 효과, 출생동시집단 효과 및 연령 효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대상 집단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을 지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윤진, 1985).

대상 집단에 따라 지각하는 심리적 안녕감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구재선(2005)은 대학생과 성인이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는 생활경험이 다름을 보여주었는데 대학생의 중요한 심리적 안녕감의 원천은 학업성취, 친구 및 이성관계, 휴식과 여가생활이었으며, 성인들의 주된 원천은 가족관계와 자녀의 성장 및 성취임을 밝혔다. 특히 대학생은 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에도 속하며 탐색과 안정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성인기 등 여러 발달 단계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현재 우리 사회의 독특한 특수성이 대학생을 발달단계에서 주요하게 구분할 수밖에 없다. 200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교육 관련 지표에 의하면 82.1%의 고등학생이 대학교로 진학을 하지만 2006년 2월 4년제 졸업자 중 63%만이 취업을 했다고 한다(동아일보, 2007. 2. 8.). 이러한 현실은 대학생들을 대학 입학부터 취업준비로 몰고 가는 현상을 낳아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부적응 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적다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더 행복감을 느낀 것은 아니기 때문에(신지연, 2007)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을 대상으로 또 다른 관점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 측면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과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높다(Ryff, 1989). Brief, Bucher, George와 Link(1993)에 의하면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이론으로 유동이론, 상향 모형과 하향

모형, 적응 이론, 역동적 균형 모형이 있다. 유동이론은 기술과 도전을 잘 연결 짓는 것이 긍정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발달시킬 즐거운 생활 사건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상향 모형은 유쾌하고 불쾌한 순간과 경험들이 합해져서 심리적 안녕감이 도출된다고 주장하며 하향 모형은 개인이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성격 차원들을 포함하여 그 사건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식으로 경험하고 반응하면서 심리적 안녕감을 자각한다는 것이다. 적응이론은 생활 사건에 의해 야기된 다양한 변화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는가와 심리적 안녕감이 관련된다. 역동적 균형 모형은 생활 사건이 심리적 안녕감을 얼마나 단기적·장기적으로 균형적이거나 정상 수준에서 이동 시키는가와 관련된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Diener, 1984; DeNeve, Cooper, & Harris, 1998; 이인혜, 1997).

성격이란 일반적으로 타고난 소질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가운데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경향성의 복합적인 산물로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을 특징짓는 비교적 일관성 있고 독특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나타낸다(Atchley, 1980). Costa와 McCrae(1992)는 NEO(신경증적 경향성-외향성-개방성) 성격모델을 심리적 안녕감에 적용시켜 외향성과 긍정적 정서, 신경증적 경향성과 부정적인 정서 사이의 강한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유희정(1987)은 성인을 대상으로 외향성과 정적인 정서가 상관이 높고, 신경증적 경향성과 부정적 정서가 상관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인혜(1997)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외향성과 정적 상관, 신경증적 경향성과 부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노안영, 강영신(2006)은 신경증적 경향성과 부

적응이 정적 상관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외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고 신경증적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Rusting과 Cheryl(1998)은 외향성과 신경증적인 경향의 성격적 특질들이 정서적 내용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개인차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Kette(1990)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외향적인 수감자들이 내향적인 수감자들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더 낮은 것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사건과 생활변화가 성격특성의 영향과 더불어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Diener(1984)는 성인을 대상으로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생활환경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격요인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단순히 선형관계로 이해하기보다 두 변인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 성격 및 인지양식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지양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지양식이란 인지적 조작과 기능수행에서 나타나는 일괄적이며, 지속적인 개인의 특성으로 자극을 선택하거나 조직하는 규칙 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인 정보처리 기제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환경적 자극과 정보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일관된 성향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기제이다(Witkin, H. A., Oldman, P., Raskin, E., & Karp, S., 1971). 인지양식에는

장독립성과 장의존성이 있다. 장독립성이란 장의 영향을 안받거나 비교적 적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제지향적이고 독립적이며 분석적이고 전체에서 사물을 분리해내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의존성은 장에 의존하여 주위 환경의 일반적인 구조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에서 사물을 분리해내고 변별하는 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성격 및 인지양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정희(1997)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장의존 집단이 장독립 집단에 비해 사회성과 사교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사교성은 외향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장의존집단이 높은 외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의존성과 외향성간의 상관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외향성 성격유형과 관련해서 김희선(199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향성 집단에서 장독립성 집단이 장의존성 집단보다 사교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내향성 집단에서 인지양식에 따른 집단간에는 사교성에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장일기와 임현교(1996)는 대학생 집단과 운전기사 집단을 대상으로 인지양식과 성격유형에 따른 행동특성을 살펴본 결과 장의존 집단이 장독립 집단보다, A형 성격유형이 B형 성격유형보다 반응시간에 비하여 동작시간이 짧게 나타나 덜 신중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장의존적이며 A형 성격유형 집단이 장독립적이며 B형 성격유형 집단에 비해 불안정한 행동특성을 더 많이 보이고 운전기사집단의 경우 사고기록에서 피해액수가 500만원 이상인 중사고자가 유의미하게 더 많이 나타남을 보였다. 권지연, 이종희(2003)는 유아를 대상으로 인지양식과 성격에 따른 놀이 스타일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장독립적이고 외향성이 높을수록 주도적 놀이스타일을 더 선호하고 장의존적이고 내향성이 높을수록 추종적인 놀이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성격 및 인지양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외향성 성격과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신경증적 성격과 관련해서 노안영과 강영신(2006)은 신경증적 경향이 높을수록 부적응과 상관성이 높음을 주장하였다. 유희정(1987)과 이인혜(1997) 또한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경증적 성격과 부적 정서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Fine(1972)는 장의존적인 사람들이 신경증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을 보고했다. Kimble과 Garnezy(1963)는 장의존적인 사람이 장독립적인 사람에 비해 독창성이 부족하고 자존심이 약하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약해 현실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더 높다고 했다. Riding과 Dyer(1983; 김희선, 1998에서 재인용)는 장의존적인 사람이 타인에 대해 더 민감하고, 사회적 맥락에서 외부환경단서에 주의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백지연(199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독립적 인지양식이 높게 나타날수록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했다. 진희경(1996)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장독립적 집단이 장의존적 집단보다 대인문제해결력이 우수하고 성취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은영(1988)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장독립성이 증가하여 개인의 경험에 의해 심리체계가 분화되어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높아지

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됨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격과 부적응은 일관되게 정적 상관을 보여주지만 인지양식과 스트레스, 대인문제해결력 등 심리적 안녕감을 유추해볼 수 있는 변인들과는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신경증적 성격과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는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측면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의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지각적 측면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장의존성·장독립성 인지양식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외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이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을 것이다. 둘째,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외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신경증적 경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광주시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175명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 175명 중 남자는 83명(47.4%), 여자는 92명(52.6%)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43명(24.6%), 2학년 36명(20.6%), 3학년 61명(34.9%), 4학년 35명(20.0%)로 나타났다. 평균연

령은 22.64세( $SD = 2.38$ )이었다.

### 측정 도구

#### 성격검사(NEO-PI-R: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한 척도로 안창규와 이경임(199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신경증적 경향성(N), 외향성(E), 경험의 개방성(O), 친화성(A), 성실성(C)의 다섯 개 요인 2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E)과 신경증적 경향성(N) 두 개 요인 9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하위 척도 중 외향성은 사교성, 활동수준, 주장성, 흥분 추구, 긍정적 정서, 따뜻함을 나타내며 신경증적 경향성은 불안, 자의식적임, 우울, 상처를 잘 받음, 충동성, 공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격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가 .89, 외향성 .88, 신경증적 경향성 .87로 나타났다.

#### 인지양식검사: 집단잠입도형검사(GEFT: Group Embedded Figure Test)

Witkin, Oldman, Raskin과 Karp(1971)가 제작한 것을 전윤식과 장혁표(1983)가 표준화한 집단잠입도형검사를 사용하였다. 전체 검사는 1, 2부 각각 16문항으로 10분씩 20분 동안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이 잠입되어 있는 복합도형 내에 잠입된 단순도형을 찾아내는 과제를 수행한다.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은 GEFT의 점수를 기준으로 나누어졌다. 즉 GEFT점수 분포의 4분위 편차를 기준으로 제 1사분위( $Q1 =$

25%)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집단을 장의존 집단, 제 3사분위(Q3= 75%)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집단을 장독립 집단, 나머지 제 1사분위와 제 3사분위 사이의 50%에 해당하는 집단을 중간집단으로 구분하였다(Witkin, Goodenough, & Oltman, 1979). 상관분석에 사용된 GEFT는 점수가 높을수록 장독립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전운식과 장혁표(1983)의 기준에 의해 장의존 집단 44명, 장독립 집단 44명, 중간집단 87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 54 문항을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문항분석을 통해 46개 문항으로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적으로 동의안함’(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함’(6점)의 6점 척도로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환경 통제력, 자율성, 개인적 성장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alpha$ 는 전체가 .92, 자아수용 .81, 긍정적 대인관계 .82, 삶의 목적 .77, 환경 통제력 .73, 자율성 .63, 개인적 성장 .61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량 분석 및 다변량 분석을 위해 SPSS 15.0을 사용하였으며,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의 다집단 분석은 AMOS 4.0을 사용하였다. 다변량 분석을 위해 다변량분

석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였다. 먼저 Cook의 거리를 통한 극단치 검증결과 극단치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왜도와 첨도를 검증한 결과 모두 1보다 작게 나타나 단일변량의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었다. 성격, 인지양식으로 구성된 두 개의 독립변인과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잔차의 정규분포, 독립성, 등분산성을 검증하였다. 잔차의 정규분포는 잔차에 대한 정상확률곡선(Normal P-P)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독립성은 Durbin-Watson 값이 1.7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도 충족되었다. 또한 잔차 플롯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값들이 골고루 산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등분산성 가정도 충족되었다.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값이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결 과

### 성격 및 인지양식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성격 및 인지양식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표 1이다.

표 1을 살펴보면 변인들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외향성이 높을수록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고, 장독립적 인지양식이 낮으며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장독립적 인지양식이 낮으며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독립적 인지양식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의

표 1. 성격 및 인지양식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상관계수( $N = 175$ )

	1	2	3	4
1. 외향성	-			
2. 신경증적 경향성	-.402***	-		
3. 인지양식	-.170*	-.219**	-	
4. 심리적 안녕감	.428***	-.432***	.211**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상호작용 정도,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외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게 느낌을 의미하며, 또한 적응 및 정서적 불안정을 나타내는 신경증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덜 편안하게 느낌을 의미한다. 성격과 인지양식간의 관계에서는 외향적일수록, 신경증적 경향이 높을수록 사물을 환경에서 변별하는 것이 보다 어려운 장의존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성격과 인지양식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지양식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사물을 환경에서 변별하는 것이 용이한 장독립적인 경향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자가 세운 가설인 성격, 인지양식, 심리적 안녕감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지지해주고 있다.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의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양식이 성격과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

어 있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독립 집단의 경우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648, p < .001$ ), 장의존 집단의 경우도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20, p < .001$ ).

장독립 집단과 장의존 집단의 표준화계수의 유의성을 집단 간 차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차이 값은 3.21로 1.96보다 크게 나타나 집단 간 표준화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양식에 따라 성격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가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인지양식에 따른 경로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인지양식 점수별로 성격요인

표 2.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다집단 분석결과( $n = 87$ )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CR
장독립	.231	.025	.648	9.24***
장의존	.192	.031	.420	6.19***
차이				3.21*

주. \* $p < .05$ , \*\*\* $p < .001$

중 외향성을 평균을 중심으로 저집단(평균 -1SD이하), 평균집단(평균±1SD), 고집단(평균 +1SD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인지양식 점수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각각 장의존 집단과 장독립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선을 구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1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의존 집단과 장독립 집단은 성격요인 중 외향성 수준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외향성 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는 장독립성 집단이 장의존성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외향성 수준이 평균인 집단에서는 장의존성 집단이 장독립성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이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과 인지양식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데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향성 수준과 인지양식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외향성 수준( $F(2, 87) = 2.96, p < .05$ ),

인지양식( $F(1, 87) = 2.83, p < .05$ ), 외향성 수준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F(2, 87) = 2.67, p < .05$ ) 모두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 수준과 인지양식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에 대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향성 수준( $F(2, 87) = 2.51, p < .05$ ), 인지양식( $F(1, 87) = 2.36, p < .05$ ), 외향성 수준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F(2, 87) = 2.24, p < .05$ )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중 자아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 수준( $F(2, 87) = 2.12, p < .05$ ), 인지양식( $F(1, 87) = 2.05, p < .05$ ), 외향성 수준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F(2, 87) = 2.30, p < .05$ )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 수준( $F(2, 87) = 2.97, p < .05$ ), 인지양식( $F(1, 87) = 2.52, p < .05$ ), 외향성 수준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F(2, 87) = 2.89, p < .05$ )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중 삶의 목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 수준( $F(2, 87) = 2.32, p < .05$ ), 인지양식( $F(1, 87) = 2.04,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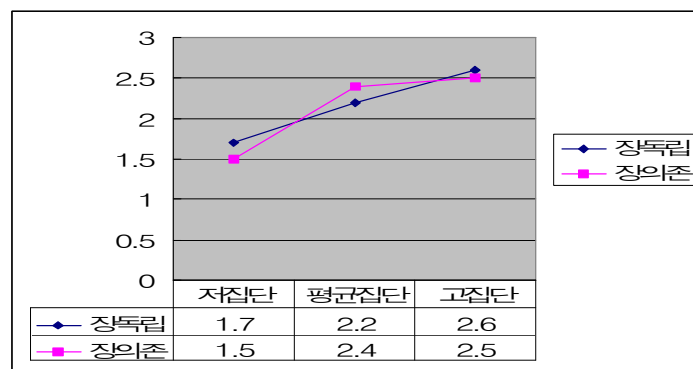


그림 1. 외향성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주. 외향성을 기준으로 저집단(평균-1SD이하), 평균집단(평균±1SD), 고집단(평균+1SD이상)



< .05), 외향성 수준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 $F(2, 87) = 2.86, p < .05$ )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중 환경 통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 수준 ( $F(2, 87) = 2.75, p < .05$ ), 인지양식 ( $F(1, 87) = 2.48, p < .05$ ), 외향성 수준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 $F(2, 87) = 2.67, p < .05$ )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중 자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 수준 ( $F(2, 87) = 2.79, p < .05$ ), 인지양식 ( $F(1, 87) = 2.31, p < .05$ ), 외향성 수준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 $F(2, 87) = 2.36, p < .05$ )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 중 개인적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양식 점수별로 성격요인 중 신경증적 경향성의 저집단(M-1SD), 평균집단, 고집단(평균+1SD)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인지양식 점수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각각 장의존 집단과 장독립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선을 구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2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의존 집단과 장독립 집단은 성격요인 중 신경증적 경향성

수준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는 장독립성 집단이 장의존성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신경증적 경향성이 평균인 집단에서는 장의존성 집단이 장독립성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경증적 경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이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증적 경향성과 인지양식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데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경증적 경향성 수준과 인지양식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경증적 경향성 ( $F(2, 87) = 3.81, p < .05$ ), 인지양식 ( $F(1, 87) = 2.83, p < .05$ ), 신경증적 경향성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 $F(2, 87) = 3.13, p < .05$ ) 모두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적 경향성과 인지양식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에 대한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경증적 경향성 ( $F(2, 87) = 3.75, p < .05$ ), 인지양식 ( $F(1, 87) = 2.64, p < .05$ ),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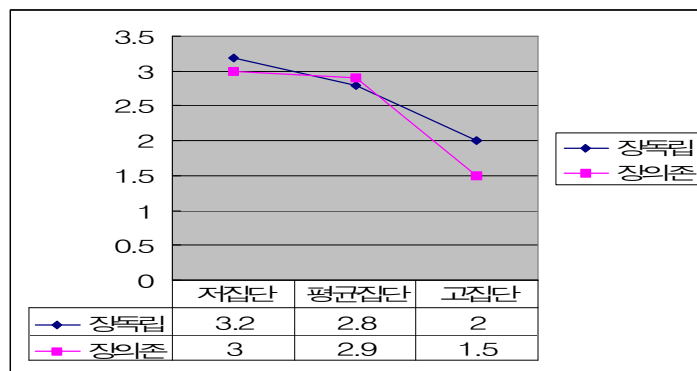


그림 2. 신경증적 경향성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주. 신경증적 경향성을 기준으로 저집단(평균-1SD이하), 평균집단(평균±1SD), 고집단(평균+1SD이상)

경증적 경향성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F(2, 87) = 3.01, p < .05$ )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자아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적 경향성( $F(2, 87) = 3.73, p < .05$ ), 인지양식( $F(1, 87) = 2.57, p < .05$ ), 신경증적 경향성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F(2, 87) = 3.24, p < .05$ )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적 경향성( $F(2, 87) = 3.92, p < .05$ ), 인지양식( $F(1, 87) = 2.91, p < .05$ ), 신경증적 경향성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F(2, 87) = 3.42, p < .05$ )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삶의 목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적 경향성( $F(2, 87) = 3.77, p < .05$ ), 인지양식( $F(1, 87) = 2.65, p < .05$ ), 신경증적 경향성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F(2, 87) = 3.01, p < .05$ )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환경 통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적 경향성( $F(2, 87) = 3.72, p < .05$ ), 인지양식( $F(1, 87) = 2.73, p < .05$ ), 신경증적 경향성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F(2, 87) = 3.04, p < .05$ )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적 경향성( $F(2, 87) = 3.65, p < .05$ ), 인지양식( $F(1, 87) = 2.46, p < .05$ ), 신경증적 경향성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F(2, 87) = 2.98, p < .05$ ) 모두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및 인지양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격의 하위요인 중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과 인지양식 및 심리적 안녕감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격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가 인지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의 하위 요인 중 외향성이 높을수록,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향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부적적인 상관이 있다는 이인혜(1997), Costa와 McCrae(1992)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희정(1987)과 같은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측정 도구로 Costa와 McCrae(1992)의 NEO-PI-R을 사용했는데 Costa와 McCrae(1992)가 제안한 외향성의 개념은 단순히 사교성, 활동성 수준뿐만 아니라 사교성, 활동 수준, 주장성, 흥분 추구, 긍정적 정서, 따뜻함, 신경증적 경향성은 불안, 자의식적임, 우울, 상처를 잘 받음, 충동성, 공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의 하위 요인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향성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적 정서가 신경증적 경향성의 하위 요인 중 상처를 잘 받음 등이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때 성격 요인을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긍정적 정서, 상처에 대한 취약성 등에 좀 더 세부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성격의 하위 요인 중 외향성이 높을수록,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장독립적 인지양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장의존 집단이 장독립 집단에 비해 사교성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박정희(1997)와 일치하며, 장의존적 사람들이 외향성이 더 높다는 Riding과 Dyer(1983; 김희선, 1998에서 재인용)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Fine(1972)의 장의존성과 신경증의 높은 상관을 보여준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내·외향성의 성격과 인지양식간의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고한 Fine(1972), 김희선(1998)의 선행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희선(1998)이 MBTI를 사용해 외향성을 측정했기 때문에 본 연구와 측정도구 차이로 인한 결과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장독립적 인지양식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독립적인 사람들이 장의존적인 사람들에 비해 자아강도가 강하고 지각과 사고를 정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아(신민섭, 1984)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진희경(1996)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장독립적인 학생이 대인문제해결력이 우수하고 성취도가 높음을 보여준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개인 내적인 특성으로 성격, 자아 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보았지만 개인의 지각은 간과되어져 왔었다. 앞으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

키기 위해 지각적 측면의 인지양식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넷째,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성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가 장독립적 인지양식을 나타내는가 장의존적 인지양식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장독립 인지양식이나 장의존 인지양식 집단 모두에서 외향성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지만 외향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는 장독립 집단이 장의존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외향성이 평균인 집단의 경우 장독립 인지양식 집단에 비해 장의존 인지양식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외향성이 평균인 집단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인지양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이 높거나 낮은 집단은 성격 특성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서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약한 반면, 외향성이 평균 집단인 경우 성격 특성이 덜 명확해서 인지양식, 환경 등 개인 내·외적인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외향성이 평균 집단인 경우 언제든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 평균집단을 빼버리면 주효과만 나타나고 인지양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 및 그 하위요인에 대해 외향성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변량분석 및 다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외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장독립 인지양식이나 장의존 인지양식 집단 모두에서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지만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는 장독립 인지양식 집단이 장의존 인지양식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신경증적 경향성이 평균인 경우 장의존 인지양식 집단이 장독립 인지양식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과 마찬가지로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거나 낮은 집단의 경우 부적응적이거나 적응적인 성향이 보다 명확한 반면 신경증적 경향성이 평균 집단인 경우 개인 내·외적인 영향을 받아 신경증적 경향성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양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신경증적 경향성 평균집단을 빼버리면 주효과만 나타나고 인지양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 및 그 하위요인에 대해 신경증적 경향성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변량분석 및 다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신경증적 경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의 평균집단에서 장독립과 장의존 인지양식집단간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장의존적인 학생집단이 장의존적인 학생집단에 비해 학업에 대한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난 신명희, 서은희(2003)의 연구, 진희경(1996)의 장독립적 집단이 대인문제해결력이 우수하고 성취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 등 인지양식과 다른 변인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 이

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인지양식이 다른 변인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외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의 성격 특질뿐만 아니라 정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는 Rusting과 Cheryl(1998)의 제안을 본 연구 결과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김희선(1998)이 외·내향성 성격과 장독립·장의존간에 사교성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을 보여준 연구, 장일기와 임현교(1996)가 Type A, Type B성격 유형과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 집단간에 불안정한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고려할 때 정서적 측면의 성격뿐만 아니라 지각적 측면의 인지양식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부적응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져 왔지만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긍정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한 가장 주요하고 궁극적인 관심사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상관분석을 통해 그 관계여부만을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변인들의 성격과 인지양식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명확히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서 개인차에 대해 보다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정의적 측면의 성격과 지각적 측면의 인지 이 두 가지는 지속적인 속

성이기 때문에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일반 대학생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지역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아 보다 명확한 결과 해석을 위해 더 많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격요인 중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외향성이 높고, 여자는 남자보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Costa와 McCrae의 성격 요인 중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여준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만을 성격요인으로 살펴보았다.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의 요인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여 연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지양식 유형도 장독립-장의존 뿐만 아니라 충동성-사려성, 평준화-예리화, 집착성-융통성, 분석성-포괄성, 내재성-외재성 등 다른 학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인지양식으로 확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격의 다양한 요인과 다양한 인지양식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구재선 (2005).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토착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지연, 이종희 (2003). 유아의 인지양식과 성격에 따른 놀이 스타일의 차이. 생활과학연구, 8, 205-216.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김희선 (1998). 대학생의 내·외향성, 인지양식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인영, 강영신 (2006).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동아일보 (2007. 2. 8.). 작년 4년제 대졸자 취업률 63%...취업까지 평균 27.8회 응시.

박정희 (1997). 여대생의 장의존 및 장독립적 인지양식과 사회성과의 관계. 아동교육, 6, 127-142.

백지연 (1995). 인지양식·스트레스·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세계일보 (2008. 4. 8.). 한국 근로시간 1위... 삶의 질 OECD 최하위권.

신명희, 서은희 (2003). 인지양식 유형과 전공 계열 및 학업적응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41, 139-154.

신민섭 (1984). 자아강도의 강-약과 자의존성, 독립성과의 관계에서 Rorschach 반응상의 1차 과정사고의 표현 및 통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은영 (1988).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과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지연 (2007). 대학생의 행복 요인 탐색과 척도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창규, 이경임 (1996). NEO 인성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 한국가이던스.

- 유희정 (1987). 노인의 성격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외-내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1), 1-8.
- 윤진 (1985).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인혜 (1997). 성격, 유쾌한 및 불쾌한 생활경험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NEO 성격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209-219.
- 장일기, 임현교 (1996). 인지양식과 성격유형에 근거한 행동특성 분석의 안전관리응용. *한국안전학회 '96 추계학술연구발표회*. 183-188.
- 전윤식, 장혁표 (1983). *집단잠입도형검사 실시요강*. 서울: 코리아 테스트 센터.
- 진희경 (1996). 중학생의 장독립-장의존 인지양식과 역학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 (1988). 직관과 장독립 인지양식과의 관계. *인문과학*, 18, 129-145.
- Atchley, R. C. (1980). *The social forces in later life: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3rd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Brief, A. P., Bucher, H., George, J. M., & Link, K. E. (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46-653.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eNeve, K. M., Cooper, M., Kristina, & Harris, M, F.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24, 98.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Kette, G. (1990). Determinanten der Geschworenenentscheidung. *Archiv für Psychologie*, 142, 37-32.
- Kimble, G. A. & Garmezy, (1963). *Principle of general psychology*, 3rd. ed., NY: The Ronald Press.
- Rusting, R. L. & Cheryl, L. (1998). Personality, mood, and cognitive processing of emotional information: Three conceptual frameworks, *Psychological Bulletin*, 124, 98-102.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Witkin, H. A., Goodenough, D. R., & Oltman, P. K. (1979).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Current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127-1145.
- Witkin, H. A, Oldman, P., Raskin, E., & Karp, S., (1971). *A manual for the embedded figures tests*.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ists Press.

1 차원고집수 : 2008. 4. 10.  
수정원고집수 : 2008. 8. 31.  
최종게재결정 : 2008. 9. 16.

## **The Relationship Among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Cognitive Style**

**Min Jeong**

**Ann-Young Noh**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moderating effect of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cognitive style in relation among college students'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of personality, extroversion and neuroticism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the factors of personality, extroversion and neuroticism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cognitive style. Field dependence group scored higher extroversion and neuroticism. Third,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cognitive styl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Field independence group scored higher psychological well-being. Fourth, it was proved that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cognitive style exerted as moderating variable among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investigated variables regarding psychological well-being to help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discussion and implication for further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 *extraversion, neuroticism, psychological well-being,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cognitive style*